교사 수업역량 '쑥쑥' 전북교육 질적 향상

도교육청, 두 차례 걸쳐 수업나눔 콘서트 열어
어제 '새로운 교육혁신 코드 챗 GTP' 특강
내일 수석교사 10인 수업나눔 등 운영

6일 도교육청 창조나래(별관) 시청각실에서 홍영일 (주)재미와 의미연구소 대표이사가 강사로 나서 '새로운 교육 혁신 코드 챗 GTP: 생성 AI로 인한 교육의 변화와 교사의 생존전략'을 주제로 강의를 펼치고 있다. 〈사진=전북도교육청 제공〉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두 차례에 걸쳐 교사 수업성장을 위한 수업나눔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1부는 수업성장을 위한 특강으로, 2부는 수석교사 10인의 수업나눔 콘서트로 진행된다.

먼저, 6일 도교육청 창조나래(별관) 시청각실에서 진행된 특강은 홍영일(주)재미와 의미연구소 대표이사가 강사로 나서 '새로운 교육 혁신 코드 챗 GTP: 생성 AI로 인한 교육의 변화와 교사의 생존전략'을 주제로 강의를 펼쳤다.

이날 홍 대표는 △AI와 인간의 관계 재정립 방향 △챗 GTP 등장의 인류문명사적 의의 △챗 GTP와의 깊이 있는 대화 실습 △챗GTP수업사례 분석을 통한 AI의 교육적 가능성 고찰 △인간의 주체성을 강화하는 에듀테크 인식론과 활용전략 등에 대해 강의를 펼쳤다.

이어 8일에는 전주공업고등학교 2학년 교실에서 중등 수석교사 10인의 수업나눔 콘서트가 열린다.

평소 AI와 챗봇활용, 에듀테크 수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수업모형의 효과적인 적용을 고민해 온 수석교사 10인이 마이크로 티칭과 수업공감 토크를 한다.

이 자리에는 국어 이지숙·이혜숙, 수학 이영옥, 과학 이태현, 도덕 김자미, 한문 강지연, 영어 방다미, 사회 전란희, 체육 최훈, 전문과 김상기 등 수석교사 10인이 참여한다.

손영란 전북수석교사회장은 "이번 수업 콘서트는 수석교사들이 교육현장의 최일선에 서서 매순간 벌어지는 수업 고민과 수업 결과물에 대한 통찰의 시간이 될 것"이라면서 "수업전문가인 수석교사의 역할을 강화하고 자발적으로 연구하는 교직 문화 확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요즘 화두로 떠오른 챗 GTP가 학교 현장에서 올바르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역량을 높이는 게 선행돼야 한다"면서 "이번 수업나눔 콘서트가 미래교육을 대비하고, 전북교육의 질을 높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 과학교육 정책 수립 토론회' 6일 전주 왕의지밀에서 도내 초·중·고 과학교육 담당교원 및 교육전문직원을 대상으로 '2023년 전북 과학교육 정책수립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서거석 교육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급식종사자 건강상담 집중 운영… 12월까지

도교육청, 건강 유지·증진 위해… 산업보건의·보건관리자가 직접 찾아 상담·검진 등 제공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급식종사자의 건강 유지와 증진을 위해 하반기 건강상담을 집중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이날 도교육청에 따르면 급식종사자의 폐암 등 건강실태 확인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전체 급식종사자를 대상으로 폐암 검진을 지원했다. 그 결과 전체 급식종사자 3,077명 중 검진희망자 2,575명이 폐암 검진을 받았다.

이 중 이상소견을 받은 급식종사자에 대해 사후관리 일환으로 도교육청 위촉 산업보건의를 활용, 의학상담 및 건강관리 지도 등 전문적인 건강상담을 제공했다.

건강상담은 해당 기관(학교)이 신청한 일정에 맞게 산업보건의와 보건관리자가 직접 방문해 급식종사자와 1:1 대면 상담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보건관리자가 혈압과 혈당 등 기초검사를 실시하고, 산업보건의가 폐암검진 및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건강상담 △건강관리 지도 △직업병 예방·관리 방법 등을 안내해 급식종사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한다.

노경숙 학교안전과장은 "이번 급식종사자 건강상담을 통해 기초 건강 상태부터 폐 건강까지 전반적인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급식종사자의 건강보호에 관심을 갖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지난해 하반기 경력 10년 이상 또는 55세 이상으로 제한했던 급식종사자 폐암 검진 대상을 전체 급식종사자로 확대했다. /장은성기자

지난 4~5일 이틀간 중국 북경 대외경제무역대학에서 한·중·일 무역학회 공동학술대회가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중·일 무역학회 공동학술대회 개최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체제 동아시아 협력' 주제

우석대학교 박석재(경영학부) 교수가 회장을 맡고 있는 (사)한국무역학회가 한·중·일 무역학회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4~5일 이틀간 중국 북경 대외경제무역대학에서 열린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한·중·일 석학 및 학회회원 등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 체제 동아시아 협력'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벌였다.

박석재 한국무역학회장은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동아시아 각국이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모색됐다"면서 "앞으로 우리 학회는 무역학의 발전 도모와 함께 정부 및 산업계와 함께 성장하는 학회가 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내달 12일 '과학사랑 한마음 가족과학캠프'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오는 8월 12일 과학교육원에서 '2023년 과학사랑 한마음 가족과학캠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번 캠프에는 도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보호자를 포함한 5명 이내의 가족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11일까지 온라인(https://naver.me/FPe4m9Uo)으로 접속해 설문에 참여하면 된다.

신청자 가운데 추첨을 통해 20가족 100명 내외로 선정, 결과는 7월 13일 이후 휴대전화 문자 및 학생 소속 학교에 공문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캠프는 과학교육원의 다양한 시설 체험과 미션수행 결과를 공유하는 '내가 아는 과학', 과학적 시선을 담은 흥미로운 '과학 마술', 빛에 대한 다양한 탐구활동을 펼치는 '빛 속으로', 별빛 마당과 관측실에서 펼쳐지는 '우주와 밤하늘' 등으로 진행된다.

한편 당일 참석자에게는 식사와 간식이 제공되며, 자세한 내용은 도교육청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이강 창의인재교육과장은 "다양한 탐구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과학적 상상력과 잠재력을 계발하고, 나아가 가족 간의 유대감을 돈독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과학캠프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과학적 호기심을 해소하고, 탐구력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수리부엉이, 자연의 품으로'

전북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서 구조·치료 후 방생

전북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센터장 한재익)는 그간 치료해왔던 멸종위기종 Ⅱ급인 수리부엉이를 자연의 품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전했다.

센터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완주군 소양면 대흥리 위봉산성 인근에서 치료를 담당한 수의사와 직원, 그리고 현장실습생 등이 함께한 가운데 수리부엉이를 자연 방생했다.

이번에 자연의 품으로 돌아간 수리부엉이는 지난 6월 17일 전주시 호성동의 한 초등학교 축구장 그물에서 발견돼 전북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에서 구조해 치료 후 자연 적응 훈련 기간을 가졌다.

전북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수리부엉이.

이 수리부엉이는 구조 당시 전신이 그물로 감겨있었고, 그물을 제거한 후에도 기립이나 비행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센터로 이송된 후 신체검사, 방사선검사 그리고 혈액검사가 진행, 결과를 토대로 약물과 수액 처치가 진행됐다. 이후 센터 수의사들과 재활사들의 극진한 보살핌과 자연 방생을 위한 훈련 덕분에 수리부엉이는 3주 만에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을 정도로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다.

한재익 센터장은 "우리 센터는 수리부엉이 등 멸종 위기종이나 한국에서 드물게 관찰되는 야생동물을 구조해 자연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활동과 함께 멸종 위기종에 대한 연구도 병행한다"며 "이러한 방사 행사를 통해 자연 보호의 가치를 알리고, 야생동물이 인간과 함께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글로컬 문화 인재 양성·도내 문화예술 활성화

전북대 리드믹 휴먼케어 아카데미, 신입생 환영회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리드믹 휴먼케어 아카데미(센터장 엄희정, 이하 아카데미)가 글로컬 문화 인재 양성 및 도내 문화 예술 활성화에 나섰다.

6일 아카데미에 따르면 도내 중·고등학교 학생 대상 '2023 예술융합인재 교육 프로그램' 교육생 모집을 완료하고, 최근 진수당에서 신입생 환영회를 개최했다.

이날 환영회에서는 교육 참여 교수진 소개와 교육 일정 안내, 프로그램 일부인 심리테스트가 진행됐다.

행사에는 교육생과 학부모 50여 명과, 전북도의회 박용근 자문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2023 예술융합인재 교육 프로그램'은 소리와 움직임을 기반으로 한 리드믹, 감각 움직임, 표현예술, 자연치유, 진로·인성 분야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신입생들은 오는 12월까지 전북대 전주캠퍼스에서 교육과 심리·체형 테스트, 국제여름캠프, 전시,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교육은 전북교육청 지원으로 전액 무료다.

한편 이번 프로그램은 독일, 오스트리아, 중국 대학 교수진의 특강과 교육과정을 총괄하는 전북대 엄희정 교수와 한옥건축공학과 남해경 교수, 바이오메티컬공학부 권대규 교수, 심리학과 한현석 교수 등 총 40여 명의 전문가가 멘토 역할을 맡았다. /장은성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초등돌봄교실 시간 연장 이해 돕는다

도교육청, 도내 운영 학교장 등 대상 설명회 열어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6일 전주교육문화회관 공연장에서 도내 초등돌봄교실 운영 학교장 및 행정실장, 교육지원청 초등돌봄교실 담당 장학사 등 업무관련자 850여명을 대상으로 초등돌봄교실 시간 연장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학부모 수요에 따라 오는 2학기부터 돌봄교실 운영시간을 기존 오후 5시에서 6시까지로 확대됨에 따라 학교 현장의 정책 이해 등 공감대 형성과 세부 운영 계획 등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위학교는 돌봄교실 연장 운영을 위해 학부모들의 돌봄교실 연장 운영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초등돌봄전담사 근로시간 확대를 위한 변경 근로계약 등을 진행하게 된다.

특히 돌봄전담사 근로시간이 1일 4시간에서 6시간(휴게시간 30분 포함)으로 확대됨에 따라 그간 돌봄담당교사가 추진하던 돌봄행정업무도 돌봄전담사가 전담하게 된다.

이에 도교육청은 연장 운영에 따른 안전관리 환경개선비 및 추가 운영비를 조사해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며, 업무역량 강화 연수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이번 초등돌봄전담사 근무시간 확대는 교육주체 모두가 만족하는 돌봄이 될 것"이라면서 "초등돌봄교실 연장 운영 및 돌봄전담사들의 근무 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내실있는 초등돌봄교실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군산대, 인도 벨로르 공과대학과 국제교류협력 방안 논의

인도 벨로르 공과대학교 일행이 5일 국립군산대학교를 방문해 양교의 국제교류 협력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했다.

이번 방문에는 인도 벨로르 공과대학교 Nayeemulla Khan A 컴퓨터공학부 학장 외 8명이 동행했다.

이들 일행은 1박 2일 동안 국립군산대를 방문해 의류학과와 소프트웨어학과 LAB 투어, 최연성 부총장과 접견, 황룡도서관 외 대학 캠퍼스 투어와 오식도동 내 풍력발전센터 등을 둘러봤다.

6일 열린 4층 총장실에서 열린 접견에서 최연성 부총장은 "국립군산대 방문을 환영한다"라며 "양 대학의 교수교류, 학생교류, 학술세미나, 공동연구 등 다양한 분야의 활발한 협력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벨로르공과대학은 1984년 설립된 대학으로 인도 남부에 위치한 타밀나두주의 벨로르에 있는 사립 공과 특화대학이다. 벨로르 메인 캠퍼스를 비롯해 아마라바티, 보팔, 첸나이 등 모두 네 곳에 캠퍼스가 있다. /군산=김판곤 기자